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주간)

제 1 독서: 다니 7, 13-14

제 2 독서: 묵시 1, 5abc, 6-8

복 음: 요한 18, 33b-37

# 순정이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요한 18, 37).

## 성서주간을 맞이하여

### “성서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계시현장』 25항).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지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그동안 교회가 기울여온 노력이 의해서 전세계 어디에서나 성서에 대한 가톨릭 신자들의 의식이 새로워졌고, 이 점에서 우리의 경우도 결코 예외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회에 더 많은 신자들이 성서를 제대로 읽고 거기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모든 신자들이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성서를 읽고 묵상하도록 합시다. 각종 인쇄물과 전자 매체 등을 통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는 우리는 참된 말씀, 생명을 주는 진리,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받들어 모심으로써,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발걸음이 빛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다음으로, 성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땅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성서는 지금부터 거의 3천년 전부터 시작하여 약 천년에 걸쳐 다양한 환경과 정황 속에서 쓰여진 것인 만큼,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성서 연구를 위한 각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최소한 적절한 참고서의 안내를 받아야만 오해를 피하고 그 참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로서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 『계시현장』을 잘 연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끝으로, 안에서 깨달은 바를 밖에서 실천합니다. 종교는 저 위 하늘을 연상하게 하는 분과 맺는 그 특유한 관계로 인하여 자칫 그 쪽만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 혹은 사회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루가 10, 25-37)에 나타나는 사제와 레위 사람은 그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화려하고 성대한 예식을 통해 종교인으로서 하느님께 기

쁨을 드렸다고 자부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도 맞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잘못된 종교심은 거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그것은 오히려 제관으로서 시체를 만져서는 안된다는 계율을 떠오르게 함으로써 멀리 피해 도망칠 구실마저 제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두 사람과는 정반대로 죽어가는 생명을 온갖 정성을 다해 돌보아준 한 이방인을 내세우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종교생활이 오로지 성당 안의 아늑한 분위기나 자기 한 몸이라고 하는 ‘뒷박’ 속에 갇혀 있게 되면 그것은 세상을 비추어야 할 빛과 부패로부터 막아주어야 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향이 극단에 이르면 그것은 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은 그것이 우리 안에 이른바 사회적 관심을 일깨워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할 때에만 살아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은 특히 사회문제에 관한 교회 공식 가르침의 효시인 『노동현장』이 반포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다음 표현은 하느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교회의 사회 교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삶과 사회생활에 실제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동시에 그것은 인간 및 사회와 관련된 현실 문제들을 두고 그것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며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원리와 기준 및 지침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회칙 『사회적 관심』 8항).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이 병 호 주교

강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김정원 신부 / 베소라성서연구원장

이 말씀은 ‘변모’ 사건 때 일러진 내용이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다. 모세는 ‘모세5경’을 말하고, 엘리야는 ‘예언서’를 일러주고 있다. 이들이 사라지고 예수 홀로 남아 있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가 들려졌다.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지고 만다”(1고린 13, 10).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만이, 예수의 십자가만이, 십자가에 의한 죄사함의 신앙만이 필요하다. 이 위대한 신약성서의 핵심인 대 진리가 일러지고 있는 헤르몬산의 ‘변모’인 것이다.

이 위대한 ‘변모’ 사건의 결론은 ‘그의 말을 들어라’는 경고이다. 따라서 ‘말을 듣는 것’은 계명 중의 계명인 것이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나와 같은 예언자를 동족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세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신명 18, 15)는 예언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행복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도덕의 교가 아니다. 그것은 신앙의 교인 것이다. 신앙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믿음에서 온다고 사도 바오로는 말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도덕을 말하고, 수양을 논하고, 의식을 거론하며, 수덕신비신학을 말한다.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영광의 몸을 예배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는 것을 지상의 명령으로 여긴다.

이 계명 중의 계명을 교회하는 왜 소홀히 해왔던가? 교회는 이 지상의 명령보다 사람이 만든 법과 사람의 명령에 더 비중을 두고 그것을 더 중요시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양들은 ‘फल’을 못 먹어 영양 실조가 되지 않았던가!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

“어떻게 벌었을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게 돈이라 했다던가. 한 벌에 1백80만원짜리 외국산 원피스와 3백34만원짜리 투피스, 1백20만원짜리 스웨터가 서울 강남의 백화점에서 ‘불티나게’ 팔린다고 한다.

이 정도는 약과다. 통가죽으로 만든 이탈리아제 소파세트는 2~3천만원이고 탁자까지 합친 특별품은 1억원. 중국산 옥침대도 1억원, 부엌가구세트도 1억원. 1·2억원 짜리 유럽 전통가구까지 수입되기가 바쁘게 팔려나간다는 소식이다.

2억원대의 외제 고급차의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나라에는 부자도 무척 많은 모양이다.

이처럼 비싼 물건들을 척척 사가는 사람들은 어떤 계층이고 그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게미처럼은 아니더라도 개처럼 벌기만 했다 해도 좋다고 치자. 개중에는 땅투기, 정경유착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사치품이 같은 상품을 제조하고 국내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업체나 재벌산하 종합상사들이고 이들은 수입가의 3~10배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한참 과소비 퇴폐향락행위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요즘이다. 돈을 ‘정승같이’ 쓰라는 말의 참뜻은 탐관오리처럼 헤프게 쓰라는게 아니라 백성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직하고 품위있는 공복(公僕)처럼 쓰라는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

숲정이 산책



나에겐 필요없어!

**鮮宇觀光**

- 해외여행 • 여권 • 비자
- 유학 • 신혼여행
- 항공권 발매

(구) 성모병원  
☎ (0652) 87-9797  
이종길(요한)

양재 · 한복 · 홈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리안드레이)  
동부시장앞 · 민정당시료  
☎ 86-2715  
\* 냉난방 완비

고급 신사복

**귀빈양복점**

가톨릭센터 동편 사거리  
전북은행 노송지점 옆  
(85-8809, 87-4635)

한봉석(루가)  
김인숙(데레사)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잡 관



“성서주간을 맞이하여”

하느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얘기할 때 주님은 성체 안에, 교제제도 안에, 우주 안에, 형제 안에, 말씀 안에... 현존한다고 가르친다. 그중에서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성서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좀더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느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기를 통해 무수한 사람들에게 역경을 이겨내게 한 생명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근본문제인 삶과 죽음, 모든 고통과 문제해결의 열쇠는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있음을 믿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류와 민족 공동체, 개인의 구원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를 가까이 해야 한다.

또한 성서는 하느님의 이야기이고,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성서의 이야기(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성서는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 서서히 완성되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참으로 하느님이 누구이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마음을 열고, 열심히 기도하며 꾸준히 성서를 읽자.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갠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히브 4, 12).

교 구 소 식

1. 축! 건진: 11월30일(토) 오후6시 육봉 성당.  
12월1일(일) 오전10시30분 상관 성당.
2. 교구 법원: 11월25일(월) 오전10시 교구청.
3. 종교음악연구후원회 월레미사: 11월25일(월) 오후2시30분 가톨릭센터 4층.
4.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11월29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강용웅 회장.
5. 성서주간 축제: 11월25일(월)-12월1일(일), 장소-성바로 서원,  
특별 혜택-기념품 증정, 할인 코너 마련.

※ 축! 영명: 30일(성안드레아) 박종근, 김태윤, 박성팔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 **성소모임** 성바로말수도회: 12월1일 오후2시 성바로 서원 2층 (0652)252-3398.  
살레시오수녀회: 12월1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33-2578.  
사랑의 씨튼수녀회: 12월1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3층 소성당 (0652)212-3233.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불량 선물을 삼가합니다.

집들이나 친지의 집을 방문할 때 합성세제 등 환경에 피해를 주는 선물을 삼가합니다. 무심코 취한 행동들이 모여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정 농·공업 용수, 목욕탕 용수, 지질조사, 수중펌프 설치  
함마링 전문(고성능 작동기보유)  
**대한지하수개발공사**  
☎ (0652)222-7750  
전주시 완산구 효자가 593-2  
김춘산·최규숙(데레사)

동서로삼의피아노

“편이전에 읽고 부드러운소리  
독일형 삼의피아노”



피아노, 교회올겐, 관·현악기  
일반 악기, 각종 수입악기 판매

김태우(알폰소) 황진숙(안젤라)

동서관동로 다가고 입구

☎ 88-7717~8

요심이 (955) 김병오



유치원 교사 채용

- 구비서류 1.자필이력서 1통  
2.자격증명서 1통  
3.주민등록등본1통  
4.성적증명서 1통
- 연락처 (0681)32-5777  
시기동 천주교회 성심유치원

성서주간 축제

- 일시: 91년11월25일(월)-12월1일(일).
- 장소: 성바로 서원(중앙성당 옆).
- 특별 혜택: 기념품 증정, 성바로출판사 25%, 50% 할인코너 마련.
- 문의: (0652)252-3398

천주교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제주도에 오셔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최소한 15일 전에 연락바람  
연락처: (064) 55-5151  
(사도회 사무실)

결혼·약혼·파티복·남복  
**한복고려주단**  
전 광 원 (미르코)  
김 소 피 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가 120-1  
(신촌 예식장 골목)  
☎ 88-1902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승 남

1. 가정방문 : 26일-중노1가10만, 27일-중노1가11만  
28일-중노1가12만
2. 빈첸시오 : 28일 전9시30분 3. 제대회 : 28일 전10시30분
4. 유아세례 : 30일 후2시30분
5. 보좌신부님 영명축하식 : 12월1일 공식미사 후 신라회관. 제단  
제장 전연 참석바랍니다. 회비-5,000원
6. 26일, 27일 저녁미사 없음.
7. 구역반별 연도대회 결산 : 30일 저녁미사 후
8. 금주청소 : 중노2가 1,2만, 차주청소 : 중노2가 3,5만
- 지난주 봉헌금 : 939,920원 □ 교무금 : 2,143,500원
- 이차헌금 : 247,92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1. 병자봉성체 : 29일(금)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2. 유아세례 : 30일(토) 오후 6 : 30분
3. 성모상 건립 헌금 : 안정숙(오만원)
4. 모임 : ①회장단회(저녁미사 후) ②울드레아(공식미사 후)  
③제대회(28일 오전10 : 30분) ④사목회(다음주 저녁미사 후)  
⑤대건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 ※ 성당청소(30일) : 사랑하을 어머니Pr. 순결하신 어머니Pr.  
금주전례 : 정승훈 독서-이흥민씨부부 봉헌-강희술씨가족.  
차주전례 : 오교성 독서-이승노씨부부 봉헌-이흥민씨가족.  
□ 지난주 봉헌금 : 642,980원 □ 교무금 : 1,174,5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1. 성모회 : 공식미사 후
2. 견진교리 : 26일(화)부터, 저녁미사 후
3. 꾸리아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울드레아 : 28일(목) 저녁
5. 교무금 납부의 날 : 매월 첫주(다음주)
6. 청소봉사 : 평화의 날 오후Pr
7. '92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 이번주까지  
금주전례 : 해설-유만순 독서①남현준 ②김순이 봉헌-남현  
준, 이명수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박경래 독서①이옥봉 ②강경자 봉헌-이승  
복, 이옥동씨 부부
9. 성서읽기 : 히브1장-6장. □ 2차헌금 : 105,410원
- 지난주 봉헌금 : 236,860원 □ 교무금 :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
1. 일립 : ①신앙교육(강좌)-11월26일(화), 11월27일(수)양일간  
저녁미사 후(91년 한해를 반성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신자들의 교육을 실시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유아세례자가 있는 부모님들 사무실에 신청하셔요.  
③교무금-91년도연말이되었습니다. 교무금미납되신분  
들께서는년말내에납부해주시기바랍니다.
- 축! 결혼 : 신랑-황승규(프란치스코), 신부-한성순. 11월24일  
(오늘) 12시  
□ 지난주 봉헌금 : 627,600원 □ 교무금 : 678,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요셉회·사라회 : 공식미사 후
2. 불우이웃돕기 성탄카드판매 : 성품판매소
3. 주간중 미사변경 : 28일(목)미사없음. 29(금)저녁미사
4. 성서주간 : 24~30일(매일 루가 복음 읽기)
5. 청소봉사 : 5구역3반(금호2,6,9동)
- 지난주 봉헌금 : 710,190원 □ 교무금 : 651,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 성전보수헌금비람. ※ 미사에 늦지않도록. ※ 교무금납부주의.  
※ 주말급 배기운동에 적극참여. ※ '전동100년,화보집판매 : 권당  
20,000원 1. 축! 성마리아 꼬미시울승격 축하식 : 오후4시.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은 모두 참석바람. 2. 주일미사 시간변경(성당 공  
사기간 중) : 오전5시30분, 9시, 10시, 11시, 오후3시, 7시.
3. 계층별교육 : 26일(화)~28(목) 저녁미사후. 대상 : 청년
  4. 차주모임 : ①울드레아(공식미사후) ②계속클라라형제회(오후  
1시30분)
  5. 성심유치원 원아모집 : 원서교부-12월2일 접수-7일,9시(선착  
순) 대상 : 86년,88년생 □ 지난주 봉헌금 : 1,598,400원 801원  
※ 금주보수비헌금액 : 624,000원 ※ 현재모금총액 : 252,275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이 완 규

1. 연도대회 : 내일 후7시, 전구역참석(세연도,시편,찬미기도)
2. 예비자 피정 : 다음주일 전10시30분~후5시, 빠짐없이 참석요.
3. 중·고생 정기총회 : 오늘 전10시30분, 학생들은 모두 참여
4. 재소자들의 사랑의 나눔(교도소) : 27일 후1시, 후원회 참석
5. 애령분과위원 교육 : 30일(1박2일), 천호 피정의집
6. 반미사 : 26일 12-1, 전10시30분, 11-2 후8시, 28일 14-3 전  
10시30분, 14-2 후2시30분, 14-1 후8시, 29일 11-4 전10시  
30분, 11-5 후8시 ※ 거주하는 신자는 모두 참석
7. 주일미사를 생활화 합시다. 교무금 봉헌에 힘써 바랍니다.
8. 회의 : 울드레아-오늘 공식미사후, 성가대-어머니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686,590원 □ 교무금 : 476,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청년회 : 주일미사 후
2. 남전주지구 초등부 교리교사 월례회 : 28일(목)오후6시30분(본  
당)
3. 사목회 : 다음 주일미사 후
4. 전신자 모약산 등반 : 오늘미사 후(성당집결)
5. 91년도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사무실에 신청하세요.)
6. 이제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교무금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아  
울러 아직까지 교적이 정리안된 가정은 서둘러 주십시오.
7. 청소봉사 : 12월부터 2월까지의 교리교사회에서 하겠습니다.
8. 금주전례 : 정 걸 독서-봉헌 : 송민숙-이광석  
차주전례 : 최정순 독서-봉헌 : 구정삼-이재호
- 지난주 봉헌금 : □ 교무금 :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중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죽은이들위해기도를!
1. 92년 사업계획서(분과별·단체별)속히 제출바람. 2. 축! ME36  
차 주일교육수료 : (본당3쌍)! 본당ME부부모임-(화) 후8시  
미사 후(교육관) 3. 모임안내 : ①꾸리아-수10시 ②안나회-  
다음주 11시미사 후 4. 위령활동미사 : (수) 후 7시미사 중 5.  
매월마지마추는 교무금납부주의입니다. 6. 교회서적을꾸준히읽  
어서 영적으로 부유한 신자가 됩시다. 7. 예비자교리시간안내  
: ①일-10 : 40 ②(금)후7 : 30 ③(금)10 : 40 ④중고생후 6시  
(토) 8. 갑사! : 전전성사에 협조해주신분들께 감사합니다.  
※ 교무금결산 : 총신입세대1458세대중 799세대 신입액108,  
150,000원 납입67,196,000원
- 지난주 봉헌금 : 1,119,440원 □ 교무금 : 1,660,000원  
□ 평신도주일헌금 : 376,53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두

1. 나눔의주일입니다. 2. 반석회, 요셉회 : 공식미사 후 3. 유아세  
례 : 30(토)오후2시 4. 판공성사 : 26(화)저녁8시 평전, 27(수)  
장승1~3반, 28(목)한신1,2반, 29(금)오후2시 삼거리, 저녁  
한신3,4반 5. 미납된 교무금은 속히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림환한들기 : 원하는자 누구나 25(월)9시미사 후 7. 반회  
장기도회모임 : 29(금)어머니미사 후 8. 제대회, 빈첸시오회 1일  
피정 : 12월2(월)9시 9. 중고학생정기총회 : 학생미사 후, 장소  
: 지하강당 학생들은 빠짐없이 참석해주시요. 차주모임-꾸  
리아, 사목회  
지난주 신축헌금 봉헌액 : 11,070,000원  
◎감사 : 타본당신자익명 천만원 기증.  
차주전례해설 : 임창수 독서①정상수②조소래 기도①박천운②  
임신재 □ 2차헌금 : 465,430원
- 지난주 봉헌금 : 851,580원 □ 교무금 : 2,402,000원